



‘역사적인 아마로네의 거장, 토마시 아마로네’

토마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Tommasi Amarone Della Valpolicella Classico

지역	이탈리아 > 베네토 > 발폴리첼라		
포도품종	꼬르비나 50% 론디넬라 30% 꼬르비노네 15% 오셀레타 5%		
알코올	15.5%	용량	750ml
등급	DOCG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잘 익은 체리, 자두, 말린 무화과 등의 과실향에 말린 타임(Thyme) 향의 발사믹 엑센트, 에스프레소의 스파이시한 향 등이 더해져 복합미와 기교가 뛰어난 와인이다. 산도감과 탄닌의 뛰어난 균형감으로 입 안을 매우 부드럽게 감싸며, 오랜 지속감을 준다.		



제품설명



아마로네는 이태리의 가장 유명한 드라이 레드 중 하나이다. 포도를 수확 후 매트나 건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선반등에 펼쳐 놓고 이듬해 1~2월까지 건조시킨다. 이렇게 건포도처럼 수분이 빠져나간 포도는 당도가 농축되며 무게도 수확 직후에서 약 50%가 줄어든다. 모든 당도가 알코올로 변환되지 않게 중간에 발효를 중지시켜 당도와 적당한 산도가 있는 와인은 레치오토(Recioto)라 부르며, 모두 알코올로 변환시켜 드라이하고 파워풀한 미감에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닌 드라이한 와인은 아마로네(Amarone)라고 부른다. 토마시 아마로네는 토마시의 플래그쉽 와인이자 가장 유명한 아마로네 와인 중 하나이다. 수확 후 다음해 2월까지 건조시킨 포도를 사용한다. 이태리의 전 국무총리인 Dott. Silvio Berlusconi가 토마시 아마로네 애호가로 알려져있으며, 이태리의 세계적인 영화, 오페라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를 비롯한 가수, 영화배우, 유명 운동선수들이 토마시 아마로네의 애호가로 알려져있다.

수상내역



2019빈티지 디켄터 Decanter 91점
 2019빈티지 95점
 2019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3점

와이너리



토마시는 1902년, 지아코모 토마시가 이태리 북부지역 베로나의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와인산지의 심장부이자, 역사적인 명소 페데몬테에 설립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이다. 선조인 지아코모가 개간한 작은 빈야드를 시작으로 서서히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오늘날 포도 재배에 완벽한 조건을 지닌 총, 242헥타르의 드넓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4대째 가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9명의 자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성공적으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토마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캐릭터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의 레드와인 생산자로 이름을 알리며, 그 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 레드인 '아마로네의 세계적인 거장'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토마시의 최상위 레인지 디 브리스, 베네토 대표 와이너리 토마시, 토스카나 BDM의 명가 카시사노, 마렘마의 포지오 알 투포, 총 4개의 브랜드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